

인	인
6-6	36
	도시민민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 자료집 제 4 호

세계주거회의 실천과제와 민간단체의 역할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보고회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도시정상회담: the City Summit)

1996. 7.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2동 75-12 전화 : 3673-3031-3 전송:3673-3278

Korean NGOs & CBOs Forum for HABITAT II

E-mail : hajea@chollian.dacom.co.kr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 ACHR한국위원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환경운동연합 / 부산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 녹색교통운동 / 녹색연합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 한국 환경·사회정책 연구소 / 한국도시연구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회협의회 / 천주교도시빈민회 / 한국기독교사회발전위원회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

세계주거회의 실천과제와 민간단체의 역할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보고회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도시정상회담: the City Summit)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2동 75-12 전화 : 3673-3031-3 전송:3673-3278

Korean NGOs & CBOs Forum for HABITAT II

E-mail : hajea@chollian.dacom.co.kr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 ACHR한국위원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환경운동연합 / 부산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 녹색교통운동 / 녹색연합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 한국 환경·사회정책 연구소 / 한국도시연구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 천주교도시빈민회 / 한국기독교사회발전위원회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

자료집을 내면서

세계주거회의를 준비한지 1년 민간위원회가 출발한지 9개월이 지났다. 자타가 공인하듯 이스탄불에서 우리는 그 어느 나라 NGO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다양한 단체, 계층 그리고 실무진들이 참여한 이번 이스탄불회의는 국제무대에서 NGO의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두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회의의 뒤끝이 석연치 않다. 첫째, 21세기를 앞두고 유엔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한 이번 회의는 그러나 서방 선진국들의 철저한 무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특히 아시아를 비롯하여 제 3세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 사회는 뒷짐을 지고 책임을 모습을 보였다.

20세기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구도속에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가 그렇게 순수히 선진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일깨워 주는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둘째,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의 태도다. 고도성장을 이뤄 온 우리나라는 OECD라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기 위해 그렇듯 애를 쓰고 있지만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적 태도는 국내와 제3세계의 인권 및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회의를 통한 소중한 소득은 다가오는 21세기가 바닥 공동체들간의 변증법적인 '대화'(People's Center Dialog)를 통해서만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NGO와 CBO간의 폭넓은 '대화'는 서로의 조직을 넘어서는 네트웍(Network)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한국민간위원회가 마지막으로 내놓는 이번 자료집은 그 '대화'의 시작이다.

1996년 7월 9일

세계주거회의를 한국민간위원회 활동보고

1. 사업의 취지와 목표

- 1)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 대한 홍보 및 국민여론 형성
- 2) 21세기 도시개발전략 수립과 국민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3) 인간적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 4) 인간적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5) 도시사회 문제에 대한 민과 관의 공동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 6) 국제교류를 통한 외국의 모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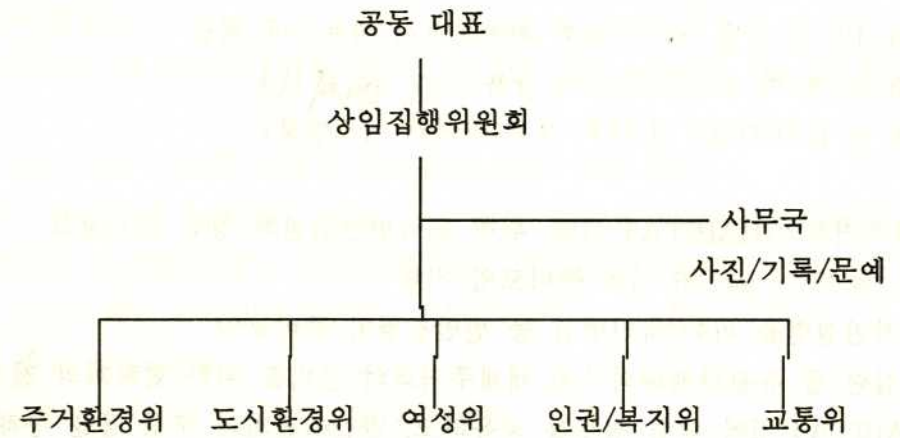
95. 10/19 10/26

2.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회원단체 (24개 단체, 무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 ACHR한국위원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환경운동연합 / 부산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 녹색교통운동 / 녹색연합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 한국 환경·사회정책 연구소 / 한국도시연구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 천주교도시빈민회 / 한국기독교사회발전위원회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

3. 한국민간위 조직체계

공동대표 : 김진홍(주거연합 공동대표), 권태준(경실련공동대표), 김혜경(구의원)
 상임공동집행위원장 : 박종렬(목사), 하성규(교수)
 상임집행위원 : 최 열, 유재현, 조광희, 박문수, 이상덕, 박재천, 조홍식, 김영준, 임삼진 (무순)



4.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사업 및 경과보고

95. 10/19 10/26

1) 진행경과

- *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도시화과정을 관리하고 인간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유엔회의(HABITAT I)가 개최됨.
- * 이 역사적인 회의의 결정사항 추진을 위해 UN은 UNCHS(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Human Settlement, 유엔 인간정주센타)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케냐 나이로비에 설치함.
- * 유엔총회는 그로부터 20년이 되는 1996년 6월에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개최하기로 결정

2) 준비과정

HABITAT II 사무국은 2년의 준비과정을 설정하고 다음의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

- * 1994. 4, 제1차 준비회의 스위스 제네바
지구행동계획의 초안 작성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제시
- * 1994. 12, 국가보고서 진행상황을 사무국에 보고
- * 1995. 4, 제2차 준비회의 (케냐 나이로비)
지구행동계획의 초안 검토

각 국별 진행보고서의 검토, 도시정상회담 추진과정 점검

- * 1995. 12, 각 국별 국가위원회 최종보고서 사무국에 제출
- * 1996. 2, 제3차 준비회의(미국 뉴욕) *미국 도시개발 협회*
- * 1996. 6, HABITAT II 대회 개최(터키 이스탄불)

3)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창립 경과보고

- ◆ 95. 04. 03 - 04. 26 기초 준비모임 진행
 -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빈민진영의 준비모임
 - 경실련 등 유관단체와의 '96 세계주거회의 준비를 위한 협력회의 전개
 - HABITAT II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해 공동 준비 하기로 함.
- ◆ 95. 05. 09(화) '96 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원회(준) 1차 모임
 - 전빈협,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여
 - 5월초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2차 준비회의 결과에 대한 정보 교환
 - 한국민간위원회 기구구성을 위한 임시집행위원회를 박종렬(전빈협 지도위원), 박문수(ACHR한국위원회 상임대표), 하성규(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김영준(주거연합 공동대표)으로 선임함.
- ◆ 95. 05. 23(화) HABITAT II를 설명하는 준비토론회 개최(종로5가 기독교 회관 2층강당)
 - 주제 ; '96 세계주거회의,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 주제발표 ; 유재현(경실련사무총장)
 - 약정토론 ; 김영준(주거연합공동대표), 하성규(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박문수(ACHR)
- ◆ 95. 06 - 07 HABITAT II에 대한 홍보 및 민간단체 참여 독려
- ◆ 95. 09. 22(금) '96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준) 4차 모임
 - 한국민간위원회 창립대회를 10월9일 오후2시 -5시, 홍사단 강당에서 개최 하고
 -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에 권태준(경실련 공동대표), 김진홍(전빈협 상임대표) 김혜경(관악구의회 의원:보사위원장)을 추대키로 하고, 참여단체의 대표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집행위원중 10인 이내의 상임집행위

원회를 두기로 함.

◆ 96년 사업보고

- HABITAT II 실무연수회를 96년 1월 4일 오후 4시부터 1월 5일까지 개최
- 아시아 지역 '가난한 이들이 바라보는 도시' 워킹숍 참가
 - 일시 : 96년 1월 14일(일) -18일 장소: 필리핀 마닐라 (안티폴로)
 - 참석자 : 유재현(단장), 이철규(경실련), 임근황(주거연합), 이정운(참여연대), 노기덕(주거연합), 임미경(서공연), 나효우(사무국)
- * 주요 회의 결과
 - ① 아시아지역에서 공동의 입장을 채택
 - ② 아시아지역 공동 HABITAT II 책임 나라로 한국과 필리핀이 담당 하기로 함
- 청와대 면담
 - 일 시 : 1월 22일
- 건교부 면담
 - 일 시 : 1월 25일 오전 11시
 - 참가자 : 홍철 차관보, 주택은행, 건교부 심의관 등
- 뉴욕 제3차 준비회의 참가 (2월1일- 2월 10일)
 - 참가자 : 하성규(단장), 이영환교수(참여연대), 이정운 (참여연대), 이철규(경실련), 나효우(사무국)
- 인간적 주거환경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3월8일 기독교 연합회관
 - 주요 내용 : 주거환경과 노동, 여성, 환경 , 교육, 사회복지 등
- 아시아 도시문제 회의 참가
 - 일시 및 장소; 96.03.11-3.15, 태국 방콕
 - 참석자: 유재현 사무총장, 하성규 교수, 박영숙 소장
- 아시아 지역 회의 참가
 - 일시: 1996년 4월 18일- 21일 장소: 필리핀 세부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제 2차 실무워킹숍
 - 일시 및 장소: 4월 30일 숭실대 사회봉사관

- 세계주거회의의 NGO 공동대표 FIDES 초청 간담회 (5/13-14)
상임집행원회 김덕룡 정무장관 면담 (5/14)
- 부산지역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토론회
일시 : 1996년 5월 16일
- 무주택자의 날 선포 및 시민 캠페인
일시 및 장소 : 5월 21일 (종묘 공원)
- 한국민간위와 지방의회의원 공동 발대식 및 도시발전을 위한 선언식
일시 : 5월 22일 오후 2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 세계주거회의의(HABITAT II) 대회 참석
일시 및 장소; 96.05.29-6.14, 터키 이스탄불
- HABITAT II 결과 보고대회
일시 및 장소; 1996.7.9, 종로성당

4) 기타 홍보사업

- * 월 1 회 통신 홍보
- * 각종 홍보자료 발간(Habitat II 소개, 리플렛, 번역자료 등)
- * 각종 책자 발간(민간보고서 등) 4 종

세계주거회의의 주요 일정

① 한국민간위 참가단 개요

- 일 정 : 1996년 5월 29일(수) - 6월 13일(목)
- 장 소 : 터키 이스탄불 공과대학(DOWN TOWN)
- 인 원 : 61명
- 주 최 : UNCHS,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②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 민간위 실무 조직체계 및 점검사항

실무 분류	담당자	실무 내용	점검 사항	선발대 준비사항
기획 및 프로그램 안내	박재천, 나효우, 이철규	전체 주요 사업(각 위원회 별 등) 및 한국민간위 참가단 주요 참석 행사 및 회의 안내	정부대표단 교섭/ 부스당번지정/ Notebook 주요참가자여권 용 사진	워크숍 - 6/1, 6/4, 6/5 ;장소, 시간 확인, 홍보(PC, 진단), 발제문/program, 토론자, 발제자 확인 (현지연락처 확인), 부대설비(slide,OHP, mike, speaker, 녹음기), 동시통역기, 음료수, 명패, 초청인사 확인, file cover, table cover-천,아시아텐트 대회 주요시설안내 약도 제작 *확인목록 *각종문서; 신청한 것, fax *주요연락처; 한국의 주요 참가단체, 방송/언론, 여행사, 현지 대사관, 호텔, 현지 각국연락처

실무 분류	담당자	실무 내용	점검 사항	선발대 준비사항
사무국 통역반	민동혜 (사무국) 김은정 (세계NGO 사무연락), 오은자 (일반안내)		아시아지역 전략회의 참가 (하성규 교수) (이철규, 민동혜)	
기록 및 문서 관리반	박성호, 서종균, 이주형, 김재관	비디오, 카메라 등 영상 기록 / 각종 문서 정리 및 기록(일일 행동 사업 정리 및 고지) 국내연락	카메라(3개), 비디오(2개), 녹음기(테이프)건전지 및 필름, 노트북프린터, 복사(?) 전용전화기, 팩스, 멀티 탭(전기 코드).	노트북 2~3, 프린터 1, 디스켓, 용지, 사무용품, 필기구-칼, 가위, 매직, 볼펜, 컬러펜, 연필
언론, 홍보반	아정운 (언론담당), 조영숙, 조유경, 김준규, 서왕진	기자회견, 일반 선전지, 한국홍보전단 행사기획 및 선전	결개그림, 포스터, 엽서, 현수막, 홍보자료, 숙소내에 게시판 설치 PC지침	전시회 장소확인; 부스 공간, 위치 - 당번확인, 결개그림 장소,
문예, 선전반	김경란, 박희정, 성철웅, 김소영	각종 행사 문예선전 각종문예 기획	각종 악기 및 쇼와 관계되는 모든 것	
총무부	나효우	회의기간내 수입 지출 정리	영수증, 도장,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노트	* 경비예약/정산 (신청서, 영수증 사본 참고)
생활반	이경래 (팀장/물품), 이지영, 이지연	한국민간위의 일상적생활지원, 스케줄 관리, 후발대 연락	숙소배정표, 구급약, 간식 및 밑반찬, 버스배차	참가자 비행스케줄

③ 한국 민간위 참가단 명단 (총 61명)

	소속 단체	성명	직책	연락처(사)	연락처(집)
1	한국 민간위 공동대표	김혜경	관악구의원 보사위원장	851-8489 / 851-8486 (F)	851-8412
2	한국 민간위 상임집행위원장	박종렬 하성규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총무 한국도시연구소장	763-8776 / 744-2748 (F) 701-9004 / (FAX 겸용)	(032) 576-4039 535-3068
3	한국 민간위 사무국	나효우 민동혜 오은자 박희정 김경란 성철웅 김소영	사무국장 국제연대 / 경실련 국제연대 문예	3673-3031 / 3673-3278 (F) 744-7508 / 745-8006 (F) 882-1043 652-2953 (012) 835-9928	854-4969 668-3191
4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Kore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KCHR)	유영우 변용주 한경섭 이경래 오병숙	성동.동대문 지부장 경기도 지부장 주거연합 공동대표 주거연합 간사 하왕5구역세대위원장	3673-3031 / 3673-3278 (F) " " " "	295-4514 032) 672-4024 481- 3480 704- 1241 298- 9058
5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위	이기우 박재천 박성호	사목위원장, 신부 도빈위 사무국장	777-7261 / 778-3414 (F) 294- 4003 777-7261 / 778-3414 (F)	295-5023
6	문화기획 은빛나라	이지연	은빛나라 간사	363-0196-7	
7	구미 가톨릭 센터	모경순		0546) 52-6929 (FAX 겸용)	
8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준규	정책위원장	529-6347 / 529-6348 (F)	
9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	273- 9535 / 273-9539 (F)	
1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연숙 오혜란	회장 기획연구부장	794-4560 / 796-4995 (F) 797- 5778 / 796-4995 (F)	
11	한국여성의 전화	조유경	간사	269- 2962-4 / 269-2966 (F)	
1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이정운	사회복지 간사	795 - 5918 / 793-4745 (F)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한주 박용일	변호사 변호사	522- 4706 / 523- 7381 (F) 452- 4456 / 452- 8577 (F)	
12	부산도시빈민사회복지 선교협의회	김홍술	목사	051) 305-4004	051) 301- 1914 (F)

	소속 단체	성명	직책	연락처 (사)	연락처 (집)
13	진보정치연합 (부산)	정운식		051) 817 - 2151	
14	원불교 환경 교육	정경숙		824- 4521 / 824- 4522 (F)	
15	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최 열 최병두 이지영 조형준 이상훈 임길진 최병수	사무총장 대구대학교 교수 정책실 간사 정책실 간사 환경연시민환경연구소 미시간 대학장	735- 7000 / 730- 1240 (F) 053) 653- 2081 735- 7000 / 730- 1240 (F) " " 0344) 973- 1488	053) 742- 6457 (F겸용)
16	녹색연합:Green Korea	김은정	기획실	042) 253- 3242	042) 253- 3244 (F)
17	녹색교통운동	임삼진 민만기	사무처장 기획실장	720- 7879 / 723- 6287 (F) "	
18	한국 환경.사회정책 연구소	이종산	사무국장	3141- 4477-8 / 3141- 4479 (F)	
19	한국도시연구소	박문수 서종균	서강대 교수 연구원	705- 8366 / (천) x 885 701- 9004 / (F겸용)	704 - 1241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유재현 이철규 권용우 박병욱 하중호 초의수 오수철 조근래 백승대 박종렬 이상기 김제동 이주형 윤경호 김재관 서왕진	사무총장 정책부장 정책연구위원,교수 정책실장 대구경실련 환경센터 부산경실련,정책위원 대전 경실련 광명경실련 사무국장 광주경실련 경주경실련,집행위원 안산경실련,사무국장 청주경실련 강릉경실련,사무국장 환경개발센터부장	766- 1523 / 3673-5707 (F) 766- 1523 / 3673-5707 (F) 920- 7142 / 921- 3130 (F) 766- 5393 / 745- 4502 (F) 807- 0265 / 895- 9306 (F) 765- 6920 / 765- 9861 (F)	921- 3574 689- 3072
21	기독교사회발전위원회	허춘중	사무국장(목사)	765- 9576 /	0345) 407- 2884

5] 한국민간위 주요 활동 내용

<회의 절차>

5월 27일 (월): 유엔 주최 회의와 참가자들 등록 및 기타 회의 등록.
6월 3일 (월): 회의 개막식
6월 3일 - 6월 14일: 회의
6월 15일 (금): 회의 폐막식
6월 12일(수)-6월 14일(금): 회의 총회; high-level segment를 다룬다.

<한국민간위원회 주요 회의 활동 내용>

5월 26일 - 선발대 활동(이철규,민동혜) 민간위 참가자 접수(전시장 및 토론회 장소)및 생활안내를 위한 활동 전개
5월 29일 - (러시아 항공편 / 하성규 상집위원장 및 지방자치팀 네덜란드 항공) 서울 출발
5월 30일 - (블란서 항공편) 서울 출발,숙소 도착 / 1차팀 오리엔테이션 및 NGO 접수
5월 31일 - NGO 회의장 방문 및 주거위원회 활동(주민지도자 워킹숍 참석) 한국민간위 문화위 문화 행사 (성주풀이/ 점심시간) 아시아인의 밤 개최 (한국민간위 문화위 중심)
6월 1일 - 한국 전시장 설치 (1일 2인 3조로 전시장 안내 / 일본내 한국촌 철거문제에 대한 서명운동 전개) / 걸개그림 설치 '지방자치와 NGO의 역할' 지방자치/한국민간위 공동 주체 토론회 개최, 세계 NGO 개막 행사 참석(오후 3시)
6월 2일 - 이스탄불 지역 관광(오전) / 분야별 회의 참석
6월 3일 - 주거권과 철거에 관한 아시아인 워크숍 유엔방송에서 주최하는 '각국의 소리' 특집에 서울(김진홍,김동주,오기백),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등 참여하여 전화 인터뷰
6월 4일 - '성폭력이 없는 사회' 한국민간위 여성위 참석 강제철거와 주거권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중 집회 (150여 명 참석)

- 6월 5일 - '여성과 쉼터' 한국민간위 여성위 참석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 한국민간위 도시환경위 포럼 개최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 김혜경 공동대표 발표
 '아시아 철거감시 프로그램(Eviction Watch Asia- ACHR)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 한국민간위 주거위 주최
- 6월 6일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세계 집회' - HIC 주최 (1000여명 참석) 갈라타 다리에서부터 행진 (현지 및 세계언론에 보도, 주거권을 인정토록 행사)
 세계 NGO주거권 및 인권관련 기자회견 (한국 민간위 결개그림 앞)
 정부대표단에 한국민간위 입장서(주거권을 명시할 것) 전달
- 6월 7일 - HABITAT 의제(관련조항 13조,44조)에 '주거권'을 인정하는데 합의, 통과
 '주거협동에 대한 동남 아시아 워크샵' 한국주거위 사례 발표
 '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주거위 사례 발표 (호주 주최)
 'HABITAT 지역화를 위한 후속작업 워킹' 박재천 발표 - UNV 주최
 아시아 연대의 밤 (아시아 텐트)
- 6월 8일 - 아시아인 지역현장 방문 - 터키 주택정책과 주거사정 답사 및 보고 토론회
 (이스탄불과 주변지역을 3개조로 나누어 현장 방문)
- 6월 9일 - 아태 / 남미 주민지도자 대화 모임
 HABITAT 지역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합의 (아시아,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남미:우루과이)
 한국 전시장 오후에 철수
 보스포러스 해협 선상 관광(저녁)
 97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주최국으로 한국이 확정
- 6월 10일 - 시내 관광 및 자유시간 (부분적 회의 참가)
 한국민간위 활동 평가회 및 송별회 (저녁)
- 6월 11일 - 러시아 항공편 이스탄불 출발 (12일 아침 귀국)

- 6월 12일 - 블란서 항공편 이스탄불 출발 (13일 아침 귀국)
- 6월 13일 - 본 회의 폐회일자인 14일을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함
- 6월 15일 (새벽 5시) HABITAT 본 회의 폐회

공식적인 자료는 회의 마지막 총회인 Habitat Agenda에서 공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Preamble, goals, principles and commitments
2. 범세계실천계획 (The Global Plan of Action) : 추진 전략
3. 국가실천계획 (National Plans of Action) : 개요
4. 동업자들과 연합회의 입장과 다짐들을 반영한 보고서
5.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한 합의서
6. 조언 목록 (Table of Commitments) 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한 조언
7. 국가 정상들의 선언 (Declarations by Heads of State)
8. Partners' forum 에 의한 statements
9. World Assembly of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에 의한 statements
10. 각 국 보고서에 의해 제출된 the five-year first-stage commitments

* 기타 활동 *

- 교통위 / 인권 사회복지위는 각 분야별 모임에 사례발표 및 회의 참가
- 기록 및 언론 보도 ; 슬라이드 사진 기록 및 국내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취재 협조 함
- 국제 연대 활동 ; LOCOA(8월말), UNDP, 태국 , 인도네시아 등에서 향후 연대활동 제안

2) 국내 활동보고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빈곤 퇴치를 위한 동반대회 (6월 2일, 도봉산)
- 세계주거회의 보고 모임 '복지협의회' (6월 22일 홍사단)
 김혜경공동대표, 하성규집행위원장 발표 및 토론 참석
- 주거환경위 평가회 (6월 25일)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의 실천과제와
민간단체의 역할

박재천 (한국민간위원회 주거환경위원)

목 차

- ① 서문
- ②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의 의의
- ③ 한국민간위원회의 준비와 활동 방향
- ④ 세계주거회의에서의 민간위 활동
- ⑤ 민간위원회(Korea NGOs & CBOs) 활동에서 얻은 시사점
- ⑥ 세계주거회의의 지역화 실천 과제
- ⑦ 민간단체의 역할

□ 서 문

1-1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UN총회는 제1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를 개최하여 인류의 주거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인류의 주거에 관한 세계적인 거론이 있는 이래로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 관련된 과제를 최근 시기의 다양한 세계회의에서 인류의 주거에 관한 안전을 채택해 왔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인 지구 정상회담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어 의제21을 도출해 냈다. 의제 21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인간의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 제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후로 계속된 회의인 인류의 인권에 관한 세계회의(비엔나, 1993), 인구나 개발에 대한 국제회의(카이로, 1994), 사회 개발에 대한 세계 정상회의(코펜하겐, 1995), 여성에 대한 제4차 세계회의(베이징, 1995) 등은 국가적, 지역적인 전략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2 인류의 주거에 관한 제2차 UN회의(HABITAT II)의 목적은 ①모든 인류에 대한 적합한 주거환경의 제공 ②세계가 도시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인류 주거의 개발을 범 지구적인 중요한 핵심 주제로 하여 논의하는 것이었다. 모든 인류에 대한 적합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적합한 생활 조건을 갖지 못한 약 10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복지의 핵심이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류의 주거환경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1-3 이러한 문제의 범 지구적 성격을 인식함으로써 세계주거회의는 조화로운 범지구적 접근을 통해 모든 인류에 대한 적합한 주거환경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실천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지금 시기는 생산, 소비의 단편적 유형과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적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범 지구적인 영향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하고 혁신적인 주거환경과 주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각 국가간의 협력이 보다 활발해질수록, 도시민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과 복지에 대한 견해가 향상되고, 지구 환경과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가 보다 밝아질 것이다.

1-4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96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Korea NGOs & CBOs Forum for HABITAT II)를 결성(95. 10. 9)하여 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주거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교통위원회로 그 역할을 나누어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1-5 준비 활동은 국내에서는 ①HABITAT II를 설명하는 준비 토론회(95. 5. 23 기독교회관 2층 강당) ②민간위원회 창립대회 및 토론회(95. 10. 9 홍사단 강당) ③인간적 주거환경을 위한 토론회(96. 3. 8 기독교연합 회관) ④지방자치회의 의원 워크숍(96. 5. 9 숭실대 사회봉사관) ⑤한국의 인간적 도시 발전을 위한 워크숍(96. 5. 14 숭실대 사회봉사관) ⑥한국민간위와 지방의회 의원 공동 심포지엄 및 도시환경 발전을 위한 선언식(96. 5. 21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등을 개최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⑦제2차 준비회의(Prep Com II - 케냐 나이로비, 1995. 4) ⑧HABITAT II 아시아포럼(필리핀 마닐라 96. 1. 14-18) ⑨제3차 준비회의(뉴욕, 96. 2. 1-10) ⑩아시아 도시문제 회의 참가(태국 방콕, 96. 3. 11-15) ⑪아시아 지역 회의 참가(필리핀 세부 96. 4. 18-21)등이 전개되었다.

1-6 이러한 준비 활동을 토대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주거회의(96. 5. 30-6. 14)에 민간위원회 참가단 61명과 지방자치 참가단 56명이 참여하여 각 위원회별 현지 활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민간위원회의 위상을 확인하고 국제적 연결망을 확대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단체들과 함께 모든 인류에게 적합한 주거환경(Housing Right)을 제공하도록 촉구하였다.

② 세계주거회의 (HABITAT II)의 의의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접근 가능성*

2-7. 1900년대 중반만 해도 세계 인구의 약 83%가 농촌에 살았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 도시 세계가 만들어졌다. 오래된 도시들은 붐비고 새로운 도시들은 꿈도 못 꿰던 속도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 신·구 도시들은 상상을 불

허하는 규모로 커져 가고 있는 것이다. 2천년대가 밝아옴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알리 엔다우2/HABITAT II 사무총장, 1994)

22-8 2천년대까지 인류의 반이상 도시에 살며 일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도 점차 경제적인 생존을 위해 도시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경제 번영도 도시에 의존하게 되어 도시는 심각하게 ①과밀집중 ②환경오염 ③사회 부패 ④실업률 ⑤가난한 주거, 하부구조, 서비스 등의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 소비, 공기와 물, 고체, 액체, 쓰레기 등 대부분의 환경문제가 도시에서 비롯된다.

2-9. 세계주거회의는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함을 세계적으로 알게 하는 기회이며 세계적, 국가적으로 ①고용 ②투자와 무역 ③생산과 소비 ④문화와 지식 ⑤지역 주민과 생산을 위한 시장 그리고 서비스 센터 ⑥시민 정신과 사회 조화 등 도시의 긍정적 역할의 인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은 ⑦주거지와 도시개발에 새롭고 효율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며 ⑧국가와 지역을 우선으로 한 국가 실천 계획을 고안, 각색, 완성시켜서 ⑨국가실천계획 행동지침을 지지하는 범세계 실천계획을 각색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2-10. 세계의 도시와 마을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하여 HABITAT II 아시아포럼(필리핀 마닐라 '96.1.14-18)은 ①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에 대한 도시의 가난한 지역 지도자, 일꾼들의 의견, 생각을 교환하고 ②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가난한 이들이 보는 도시의 전망을 명확하게 하며 ③세계주거회의에서 이러한 관점과 비전을 높여 행동계획을 발전시킨다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준비 방법의 접근은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지역에서 가난한 이들의 보는 지속가능하다 도시에 관한 광범위한 토의와 관점 모으기, 토론회 워크숍을 통해 지역 공동체 지도자와 일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 표현으로 Vision과 공통점을 모으게 되었다.

2-11 가난한 이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인간 중심의 개발; 우리 도시는 인간들의 만나는 신체적, 경제, 정신, 문화 그리고 정치적 요구들의 균형있는 발전에 근거한 진척과 실천이다. 우리는 경제적 성장 이익이 대형 백화점이나 골프장, 비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는 것에 우려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하다 도시를 위해 일하는 동료로 도시에 머물기를 원한다. 우리 지역 공동체는 고용 기회, 학교, 육아 공동체 센터, 문화 교류, 공공 운송과 충분한 음식과 같은 각종 서비스를 쉽게 받아야 한다.

2-12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들의 지역과 공동체는 인간 권리에 깊은 존중에 기초해야 한다. 인간 권리는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처럼 유엔의 조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별히 억압받는 주민들이 주거지가 강제 철거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정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자유로운 정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2-13 사회와 성(性)의 정의; 우리 공동체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이를 줄이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와 성의 정의를 실현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여성을 존속시키고 주변화 하도록 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제거어진 도시를 보기를 원한다.

2-14 민주적인 참여 그리고 개발에 있어서 투명한(공명한)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속가능하다 도시는 모든 부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참여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주민 조직, 정부, 사적인 부분들 모두 우리 공동체와 도시들의 실행과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2-15 건강한 환경; 우리 공동체는 생태도시 사이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야 한다. 모든 공동체는 물, 하수처리, 잘 처리되는 고체 쓰레기, 그린 지역의 설치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 한다. 우리 도시들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 연못, 새들, 나무들, 공원들이 보다 많아야 한다.

2-16. 세계주거회의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소중한 의의는 주민들 특히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스탄불(Istanbul)로 가져가는 것이다.(Bring people's voices to Istanbul)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의 목소리(위 2-11부터 2-15)가 아시아 태평양의 우리들 어느 나라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을 동료처럼 신뢰하며 지속가능하다 도시에 대한 우리들의 전망(Vision)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역(각나라)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며 서로에게 즉각적인 행동과 지원을 보내는 것이 세계주거회의의 참 의의로 드러나는 것이다.

3. 한국 위원회의 준비와 활동 방향

3-17.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문민과 세계화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저소득 주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과 강제 철거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성장 위주의 급속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야기된 도시 문제, 특히 주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도시 빈곤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18.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도시 빈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하다 도시와 주거 정책을 고민하는 모든 민간 사회단체들이 하나로 모여 국민과 함께 21세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시발전전략과 주거권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의 마련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 50여년 동안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도시화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치며 '인간 중심의 도시화'라는 새로운 개발정책의 수립과 주거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기회이며 나아가 국제적 연대의 확대를 통해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행동 강령 채택을 위해 노력하는 일환이 되고자 하였다.

3-19. 이같은 노력은 ①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 대한 대국민 홍보, 그리고 국민 여론 형성 ②21세기 도시개발 전략 수립과 국민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③인간적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역할 제고 ④인간적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⑤도시사회 문제에 대한 민과 관의 공동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⑥국제 교류를 통한 외국 모범사례의 발굴 등 민간위원회의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확인해 가는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과제라고 설정해 냈다.

3-20. 이것은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참가단 공동선언이라는 국내적인 합의와 성과를 도출하여 이스탄불 회의 참가단(한국민간위원회, 지방정부, 의회 참가단)으로서의 한 목소리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가시화 되었다.

3-21. 참가단 공동선언은 ①주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②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자치적인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개발주도의 경제정책은 계층간의 차별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을 소외시켰고, 정주권에서도 남녀 차별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 상속에 대한 여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④국민생활 최저선 보장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며, 삶의 질에 대한 일관된 정책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며, 전국민의 삶의 영역에 대한 합의된 기준선을 확립할 수 있다. ⑤교통 정책과 교통 운영, 교통 시설의 설치에서 친환경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량과 교통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안들이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 정책의 변화, 민간 부분의 활발한 참여, 긴밀한 연대 등 다양한 실천으로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해 냈다.

3-22. 그래서 한국민간위원회는 주요 전략으로 ①항상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②미디어를 최대한 이용하기 ③대중행동(Mass Action)형식으로 접근하기

④타 국가, 지역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⑤정부, 지방자치, 학계 등의 분야와 정상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넓혀 보기 ⑥특히 아시아 지역 행사를 참여하고 보도 자료화하기 등으로 활동 방향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활동 지침은 ⑦최대한으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세계 흐름을 파악하고 견해를 넓힌다 ⑧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키되, 특히 아시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⑨주민들간 또는 주민 사이에 연대를 활성화시킨다 ⑩아시아 지역간의 Net-work을 확대시킨다. ⑪공식적인 절차, 회의를 통하여 NGOs 및 CBOs의 관심사를 세계 흐름에 반영한다 등으로 지침을 두었다.

4. 세계주거회의에서의 민간위 활동

4-23. 터키 이스탄불의 HABITAT II NGO FORUM회의장은 타스키셀라 대학이다. 이 회의장에는 전세계 민간단체들이 건물 내부, 외부, 숲 등에 자기 나라 전시장을 마련하거나 텐트를 설치하여 다양한 민간단체 활동이 소개되거나 전시되었다. 한국민간위원회도 한국 전시장을 마련하여 공동자료(Voices of the Korean NGOs & CBOs to Habitat II)를 비치하고 각 위원회(주거환경/도시환경/여성/인권 복지/교통)가 준비한 자료나 사진 등을 게시하여 전시장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한국 전시장은 회의장 내 한국 참가단의 구심 역할이 되면서 서로의 일정이 확인되었고 다양한 정보들이 유통되는 마당이 되었다.

4-24 주거 Forum A; 아시아 지역 ^{주민}공동체 지도자 워크숍(Dialogue-Asian community Leader Workshop/5.31)이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아, 호주의 주민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3개조로 나뉘어 각국의 철거 상황, 주거권, 재개발, 빈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빈민 지역이 당면한 문제와 이에 대한 주민 운동의 대응에 대하여 토론되었다. 아시아 각국은 여전히 강제 철거가 곳곳에서 폭력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고용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유아 문제, 빈민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문제, 토지로부터의 소외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사회문제로 구조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

난한 사람들의 생활환경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스런 생활의 연속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HABITAT II에 강제철거 즉각 금지, 주거권 채택 등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25 주거 Forum B; 주거권과 철거에 관한 아시아 워킹(Dialogue-Housing Rights and Eviction/6.4)이 아시아 7개국의 강제철거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한국은 빈민들의 주거와 철거에 관한 한국 사례(Housing the poor and Forced Evictions-The south Korea experience/ 하성규)가 발표되었고, 스리랑카의 경우 철거민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해결해 가는 주민 project에 대한 모범 사례가 발표되었다. 강제철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의 결과 구조적인 원인으로 ①기본적인 인간 필요에 의한 개발에 있어서 잘못된 가치관 ②주거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③정부의 장사적 접근 ④토지와 주택의 상품화 ⑤정부의 부패 등이 요약되었으며 대응 방안으로는 ⑥주민 지도자들의 훈련 안에서 협동하기 ⑦정보의 나눔 ⑧항의 편지에 의한 공동 저항 ⑨국제적 정보 교류와 철거 감시(eviction watch) program의 강화 등으로 제시되었다.

4-26 주거 Forum C; 아시아 철거 감시 program의 활동 방향에 관한 토론(eviction Watch in Asia/6.5)이 개최되어 지난 2년간 진행되어 온 아시아 철거 감시 프로그램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항의를 위한 활동 그리고 전략 등의 정보 공유를 위한 활동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이 논의 결과 추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별 토론회를 가져 실천하기로 하였다.

4-27 주거 Forum D; 주거 협동에 관한 동남아시아 워킹(Housing cooperative in Asia/6.7)이 한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국가가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한국은 협동 방식의 주거, 경제, 생활, 사회복지, 생산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민운동 사례의 주제로 서울의 금호, 행당, 하왕 지역 주민운동(발표: 유영우)이 발표되었으며 각국의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주거 실현 사례가 발표되고 정보가 교류되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된 점은 각국의 자주적인 협동 사례가 국제망을 통해 정보 나눔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28 지방자치 Forum E; 한국의 민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역할 (발표: 방성룡 순천시장/ 그린 순천 21을 중심으로/ 6.1)이라는 주제로 현지 Forum을 개최하고 필리핀,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지정 토론자를 조직하여 토론하게 하였다. 토론 과정의 결과 지방자치 단체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사업을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토론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4-29 여성 Forum F;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발표: 김혜경 공동대표, 관악구의회 여성위원/6.5)이 개최되어 한국의 사례로는 주민운동과 의회 활동의 연계성,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관점 등을 주제로 발표되었다. 한편 성폭력 없는 사회(6.4), 여성과 쉼터(6.5) 등의 Forum에서 특히 재개발의 철거 과정에서 빈민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 사례 등이 다루어져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4-30 도시 환경 Forum G;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문제 워킹(Rethinking Urbanization in Fast Developing Countries/6.5)이 한국민간위원회의 도시환경 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한국의 주제 발표(Rapid Urbaniza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 Korea-최병두)에 이어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지정 토론이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 개발을 찾아야 하는 것과 새로운 방법으로 「녹색 GNP」 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었다. 한편 사회 정의가 깃들인 도시,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 농촌의 균형, 주민들의 환경정책에의 참여 등이 제기되었다.

4-31 대화 모임 I; HABITAT II 정신의 지역화를 위한 후속 작업 워킹(6.7)이 UNV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대화 모임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대륙의 민간 대표들이 참가하였고, 한국(참가자-박재천, 박문수, 나효우, 민동혜/ 발표:박재천)은 후속 작업으로 각 나라의 지역운동 사례에 대한 지역간 WORKSHOP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주거권실현과 강제철거 근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철거감시(EVICTION WATCH)를 강화하고, 국가간의 연결

망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4-32 대화 모임 II; 아시아, 태평양, 남미 주민 지도자 대화모임(6.9)이 아시아 텐트에서 개최되었다. 각 대륙별 나라들이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자기 나라들의 상황과 대응 방안들이 정보 교환되었고, 그 결과 전체 모임에서 요약 발표되었다. 대체적으로 각 대륙의 나라들은 강제철거 등의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①Internet을 개설하고 ②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Home page를 마련하여 정보 교환하며 ③대륙간 연결망으로 아시아는 한국-서울, 필리핀-마닐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 두며, 남미는 우루과이를 연락망으로 확정하였다.

4-33 대중 집회(Mass Action) I; 강제철거와 주거권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중 집회(6.4)가 약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 텐트를 출발하여 NGO Forum회의장인 타스키실라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Mass Action은 대중 문화적 표현으로서 한국의 풍물과 성주풀이로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각국의 저항적인 다양한 발표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 행사와 행진으로 전개되었다. 강제철거의 즉각적인 금지와 주거권 채택을 요구하는 아시아-태평양의 참가자들은 서로간의 연대 의식을 고취하며, 공감대를 확대하였으며 많은 나라들과 깊은 연대의 장이 되었다. 터키 현지 언론은 한국의 성주풀이 중 고사지내는 장면을 사진 기사화 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요구를 여론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34 대중 집회(Mass Action) II; HIC(하비타트 국제연대) 주최로 열린 주거권 실현을 위한 세계 집회(6. 6)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스탄불 시내의 갈라타 다리 사하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프랑스 무주택자의 권리를 위한 사이클리스트들이 집회 현장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집회가 시작되어 한국의 풍물과 각국의 문화가 결합하여 주거권을 즉각 실현하라는 구호와 합성이 어우러지면서 기자 회견에 이어 갈라타 다리 평화 행진이 전개되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평화 행진의 목표지점은 NGO Forum장인 타스키실라 대학까지였다. 그러나 터키 경찰은 행진대열 선두가 갈라타 다리를 막 건넌 지점에서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행진대열에 터키의 쿠르트족이 합류되어 있기 때문

이었다. 이때부터 터키 국내의 민족문제와 인권에 관한 문제가 행진 참가자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행진 대열은 연좌 농성으로 맞섰다, 평화행진 협상은 1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참가자들의 연좌농성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평화행진은 계속되지 못했고 우리측 협상대표들은 이미 우리의 주장과 의사를 충분히 표현했다고 판단하여 집회를 해산하였다. 현지 TV언론과 세계언론은 이 집회과정을 톱기사로 취급했다. 이 집회는 ①주거권을 의제로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②터키 NGO에 대한 터키 정부의 탄압을 항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4-35 인권 탄압에 대한 연대 항의; 세계 집회에서의 터키 NGO에 대한 탄압에 이어 그 다음날에도 이들의 시위와 저항에 터키 경찰은 폭력 연행을 자행하였다. 이 소식은 각 대륙 NGO대표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었고 각 대륙은 긴급대책 모임이 조직되었다. 대책 모임은 터키 정부의 터키 NGO탄압과 경찰들의 시위자 연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6.10)을 갖고 항의의 표시로 검은 띠를 입에 묶고 회견장에 누어 침묵으로 30분간 항의하였다. 인권탄압에 대한 전세계 NGO들의 일치된 연대모습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4-36 문화 활동(Cultural Action) I;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된 문화 활동은 아시아인의 밤(5. 31)과 아시아 연대의 밤(6. 7) 그리고 아시아 Mass Action(6. 4), 세계 Mass Action(6. 6)이었다. 한국의 문예팀은 연일 계속되는 문화 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했다. 아시아인의 밤에서 한국의 전통무예가 소개되었고 Mass Action에서는 언제나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에서 보다 더 진한 일치감을 문예활동에서 쉽게 느낄 수 있었고, 다른 나라 참가자들에게도 구심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①한국의 전통문화 자체가 소개되었고 ②아시아인의 정서를 결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③인도네시아의 문예활동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서로의 폭을 넓히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 한국 참가자 스스로 문화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의 부족이 새롭게 반성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4-36 문화 활동(Cultural Action) II; 준비해 간 대형 걸개그림은 언제나 모든 이들의 관심이었다. 경제성장이 주는 도시의 문제를 고발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의 자리인 산동네를 철거하는 상징인 걸개그림은 NGO Forum 회의장에서 늘 게시되어 HABITAT정신을 이해하는데 종합적인 표현이 되었다. 이곳에서 Asia Mass Action이 시작되었고, 기자회견장이 되었으며 취재 장소가 되기도 했다.

4-38 아시아인의 공동 현장 방문; 아시아인 지역 현장 방문(6. 8)은 터키 주택 정책과 주거 사정을 답사하여 현장 방문의 결과 보고를 통해 나누고 배우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스탄불 시내의 주변 지역을 3개조로 나누어 터키 산동네 가정 방문, 협동조합 주택의 건설지역, 신도시 아파트 단지, 재개발 현장 등을 견학하여 터키 주택정책과 주거 사정을 현장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터키 NGO의 주선과 도움으로 실시된 현장 방문은 산동네의 경우 교육, 생활 등이 우리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협동조합 주택의 경우 주민참여라는 긍정성이 있는 반면에 공공 지원의 차별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 조직, 주민운동 수준이 높지 못함을 보았다. 3개조의 경험이 보고되고 토론하던 계획은 터키 NGO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 연행 소식이 접해지면서 우선하여 대책 모임이 진행되어 현장방문 결과 토론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4-39 주거권의 의제 채택을 위한 로비 활동; 제3차 준비회의(뉴욕 96. 2. 1-10)가 끝나 갈 무렵 '주거권'에 관한 논쟁에서 미국의 입장은 의제 채택을 반대했다. 그러나 대개 모든 나라들이 주거권 보장을 주장하였으며, 유럽 연합(EU)도 이 문구의 사용을 지지했다. 한편 일본과 한국 정부는 '주거권'(Right to Housing)을 축소하자는 미국의 입장에 찬성했다. 따라서 '주거권' 문제는 이스탄불 회의까지 보류되어 이월되었다. 그래서 2월 뉴욕 회의 이후에 세계 여러나라 NGO들은 '주거권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라는 구호가 HABITAT I 보다 HABITAT II에서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민간위원회 대표들(김혜경, 하성규, 박종렬, 한경섭)은 현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을 만나 한국민간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공식 문서로 전달하고 '주거권'의 의제 채택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로비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같은 활동은 아시아 Mass Action과 세계 Mass Action등이 개최되어 현지 여론화되는 가운데, '주거권'을 의제에 채택하여 명시하겠다는 한국 정부 대표단의 입장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성과

는 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에게는 가장 큰 희소식이 되었다.

4-40 본회의 활동; HABITAT II 회의는 ①'Committee I'이라 하여 Habitat Agenda와 범세계적 실천 계획(Global plan of Action)을 다루는 위원회 ②'Committee II'라하여 각국의 NGO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위원회(Hearing Committee)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한국민간위원회 본회의 참가 대표단들(김혜경, 하성규, 박종렬, 박문수, 조영숙 등)은 Committee II의 본회의 활동을 통해 각국의 입장을 청취하면서 흐름을 파악하였고, 한국 정부 대표의 연설을 지켜보았다. 한편 이러한 흐름을 아시아 NGO대표단에 전달하여 '주거권'의 의제가 채택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 주력하였다.

4-41 한국민간위 사무국 활동과 아시아 사무국; 현지에서의 한국민간위원회 사무국 활동은 ①기획 및 프로그램 안내 ②통역반 ③기록 및 문서 관리반 ④언론·홍보반 ⑤문예·선전반 ⑥총무부 ⑦생활반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매 아침마다의 브리핑과 활동 후 밤의 점검회의 등 전체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에 임했다. 한편 각 위원회별 자체 모임과 평가 등이 진행되어 보다 효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아시아 텐트를 중심으로 아시아 사무국을 운영하여, 국가간의 연결망을 원활히 했다. 특히 아시아 사무국의 홍보팀을 구성하여, 현지 소식지인 「The Asia Pacific Voice」을 발행하고, 각종 활동을 알리거나 중요한 회의 결과들을 요약하여 실어내는 역할로서 현지 활동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데 기여했다.

4-42 기타 주요 활동; 한국민간위원회 참가자들은 각 위원회별로 특별한 관심 주제에 따라 사례 발표를 하거나 회의에 참가하는 활동에 임했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①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가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 사례 워킹(변용주 주거연합 경기도 지부장 발표/ 6. 7)에 참가하여 88올림픽과 도시 빈민들의 주거 상황간의 관계를 「상계동 올림픽」 비디오를 곁들여서 증언하였고 ②일본의 고베 지진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와 일본내 한국촌 철거 문제에 대한 한국 전시장에서의 서명운동 전개 ③세계 NGO 개막 행사(6. 1) 참가 ④UN방송에서 주최하는 「각국의 소리」 특집에 서울, 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등이 참여하여

전화 인터뷰 ⑤교통위원회, 인권·사회복지위원회의 각 분야별 모임에서의 사례 발표 ⑥각 분야별 자료 수집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다.

⑤ 민간위원회(Korea NGOs & CBOs) 활동에서 얻은 시사점

5-43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의 수립과 주거권 실현이라는 지평을 열기 위해 한국민간위원회는 국내에서의 준비 활동과 현지에서의 분야별 활동에 임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사점을 얻었다. 이 시사점은 국내에서의 다양한 민간 사회단체들의 연대와 결합이 중요성에서부터, 현지의 국제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5-44 세계 대륙의 다양한 NGO활동과 전시들은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자료의 전시와 발표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세계 곳곳의 도시화 문제들이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주민들의 목소리와 참가자들의 왕성한 활동은 단지 국내의 문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넓은 시야와 안목으로 세계 곳곳의 도시화 문제를 다양한 접근을 통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5-45 특히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언론의 무관심은 큰 문제이다. 국내에서 부르짖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의 실체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자문할 정도로 각 대륙과 국가는 실제적인 연결망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 좋은 본보기가 바로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간의 연대이며, 공동의 관심사를 국제적으로 풀어 보려는, 그래서 실제 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려는 자세는 감히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었다.

5-46 이같은 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세와 마음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강제철거의 실상은 어떤 경우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폭력적이며 살인적이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자원과 경험을 주어야 하고 주는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국제적인 연결망을 열어 놓는 것이며, 이에 신속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이 지금보다도 더 긴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⑥ 세계주거회의의 지역화 실천 과제

6-47 HABITAT의 지역화란 지역 주민들에게 HABITAT Agenda가 보다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주거환경이란 ①평등한 사회 ②지속가능한 생태 ③참여 가능한 정치 ④생산 가능한 경제 ⑤풍요로운 문화를 뜻한다.

HABITATII 지역화는 이상과 같은 균형적인 환경의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

6-48 HABITATII '지역화'와 행동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UN에 Asia-Pacific 2000에서는 '주민의 주거 마련 행동 지침'을 만들었다. 이 행동 지침은 NGO, CBO 민간 단위가 우리의 도시와 주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했다. 이 행동에 포함되는 주제들은 ①자각(Awareness) ②환경(Environment) ③재정(Finance) ④여성(Women) ⑤건강(Health) ⑥인력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⑦법(Law) ⑧유동성(Mobility) ⑨자신감(Self Reliance) ⑩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등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역화의 주제를 활용하여 도시개발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6-49 따라서 NGO와 CBO들의 지속적인 연결망 구축과 다양한 지역화 사례의 Case Workshop을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 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vision을 들어내서 정보를 교환한다는 의미이며 한 사례가 주는 교훈을 확대 적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물론 이같은 교훈은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간 지역화 사례를 더욱 풍부히 하여 HABITAT Agenda의 실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6-50 특히 이 교훈의 실현 과정에는 반드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HABITAT 지역화의 과제로 정부는 반드시 국가위원회를 통해 향후 2년간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을 위해 국가실천 계획을 준비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 국가 실천계획에는 ①주거와 도시 지침 등을 기초로 한 주거지와 도시화의 추세, 그리고 문제의 평가 ②주거지와 도시개발, 분산화와 도시 행정, 각 성(性)의 역할, 책임과 자원 확보, 빈곤의 경감과 고용 창출, 취약한 사회집단의 고려, 환경 및 토지 자원 관리, 재해 경감과 재건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 정책과 효율성에 대한 재고 ③지역화 사례 지명과 분석 ④1996-2000년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활동을 모니터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이 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GO와 NGO 및 CBO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 목소리가 존중되면서 추진될 것이다.

7] 민간단체의 역할

7-51 지속적인 주민교육 개발; 도시개발 전략의 새로운 수립과 주거권의 올바른 실현을 지속적인 주민교육의 개발과 실천을 통해 구체화된다. 특별히 주민공동체 지도자들의 육성과 양성은 시급한 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아시아 각국은 주민 공동체 지도자들의 육성과 양성에 지대한 관심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초적인 주민 조직(CBO)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주민교육 개발은 전문적인 분야 교육을 포함하여 주민조직을 활성화하는 기술, 민주적인 회의 운영 기술, 품성과 자질의 향상 교육,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관점의 개발 등이 포함되며, 국내외적 시야를 넓혀 성숙한 주민공동체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지속적인 주민교육 개발을 위하여 상시적인 체계마련이 논의되어야 한다.

7-52 국제연결망의 현실화; 금번 세계주거회의는 아시아뿐 아니라 중남미까지

연결하는 연결망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통신망을 개설하고 부당한 정부 정책에 국제적인 항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주거환경의 올바른 실현에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국내의 여러 가지 소식을 소식지화하여 지속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연대의 개발이 필요하고 타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 이같은 과제는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안목을 넓히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인류에게 적합한 주거를 제공하는데 그리고 균형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실적인 국제연결망의 개설이 책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7-53 HABITAT정신의 대국민 홍보와 행동전략의 수립; NGO와 CBO는 HABITAT정신의 대국민 홍보 전략과 행동전략을 주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스스로 기획하고 행동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운동 차원의 실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대국민 공청회, 지역대회 등을 통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하며 연차적인 실천지침에 따라 지역화 전략에 충실해야 한다. 특별히 UN이 채택한 중요한 날들인 세계 환경의 날(6. 5), 국제 노인들의 날(10. 1), 세계 어린이의 날(10. 6), 세계 주거(HABITAT)의 날(10. 7), 국제 빈곤 퇴치의 날(10. 17), 국제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의 날(11. 25), 국제 장애인의 날(12. 3), 인권의 날(12. 10) 등을 기억하여 새로운 접근과 행동양식으로 지역화에 기여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7-54 법률의 개정과 제정 운동; 많은 경우 법률은 가진 자의 편에 있다고 평가한다.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법률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삶의 자리를 뿌리째 뽑아 버리는 강제 철거가 개발을 촉진하고 대변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 건강, 고용, 주거, 복지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제반 분야에서 법률의 소외가 여전하고 횡포 또한 여전하다. 더더욱 주민자치의 일차적 걸림돌이 중앙 중심, 통제 중심의 법률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각 분야 법률의 개정과 제정 운동에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7-55 국가 실천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활동;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HABITA

T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UN 사무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금번 회의의 국가 보고서조차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형식에 그쳤다. 그대로 둔다면 HABITAT정신은 사장되고 아무런 국가적인 진전이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감시 기능은 필연적이다.

7-56 지방 정부에의 HABITAT 활성화 촉구; 금번 세계주거회의에 한국의 지방 정부와 의회 의원들의 참여가 규모 있게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 차원의 주거, 환경, 교통, 복지 관련 조례들이 재검토되며 새로운 지방화 전략 수립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 정부에 지역 주민조직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은 중요하다.

THE ISTANBUL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1996.6.14)

1. We, the Heads of State, Government and official delegations of countries assembled at the Seco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II) held in Istanbul, Turkey, from 3 to 14 June, 1996, take this opportunity to endorse the universal goals of ensuring adequate shelter for all and making human settlements safer, healthier, more livable, equitable, sustainable and more productive. Our deliberations on the two major themes of the Conference, adequate shelter for all and 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development in an urbanizing world, have been inspir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re aimed at reaffirming existing and forging new partnerships for action at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to improve our living environment. We commit ourselves to the objectives,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Habitat Agenda* and pledge our mutual support for its implementation.
2. We have considered, with a sense of urgency, the continuing deterioration of conditions of shelter and human settlements. At the same time, we recognize cities and towns as centres of civilization, genera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ultural, spiritual and scientific advancement. We must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y our settlements and preserve their diversity to promote solidarity amongst all our peoples.
3.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better standards of living in larger freedom

for all humankind. We recall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eld in Vancouver, Canada, the celebration of the International Year of Shelter for the Homeless and the Global Strategy for Shelter, all of which contributed to increased global awareness of the problems of human settlements and called for action to achieve adequate shelter for all. Recent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s, including particularl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ave given us a comprehensive agenda for the equitable attainment of peace, justice and democracy built on economic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compon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e have sought to integrate the outcomes of these conferences into the *Habitat Agenda*.

4.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human settlements, we must combat the deterioration of conditions that in most cases,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reached crisis proportions. To this end, we must address comprehensively, *inter alia*, unsustainable population changes, including structure and distributions, giving priority consideration to the tendency towards excessive population concentration; homelessness; increasing poverty; unemployment; social exclusion; family instability; inadequate resources; lack of bas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lack of adequate planning; growing insecurity and violenc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increased vulnerability to disasters.

5. The challenges of human settlements are global, but countries and regions also face specific problems which need specific solutions. We recognize the need to intensify our efforts and cooperation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the cities, towns and villages throughout the world,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the situation is especially grave and in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 this connection, we acknowledge that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pres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process, as well as risks and uncertainties, and that achievement of the goals of the *Habitat*

Agenda would be facilitated by, *inter alia*, positive actions on the issues of financing of development, external debt,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fer of technology. Our cities must be places where human beings lead fulfilling lives in dignity, good health, safety, happiness and hope.

6. Rural and urban development are interdependent.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urban habitat, we must also work to extend adequate infrastructure, public service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to rural areas in order to enhance their attractiveness, develop an integrated network of settlements and minimize rural-to-urban migration. Medium- and small-sized towns need special focus.

7. As human beings are at the centre of our concer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y are the basis for our action in implementing the *Habitat Agenda*. We recognize the particular needs of women, children, and youth for safe, healthy and secure living conditions. We shall intensify our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and discrimination, to promote and protect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and to provide for basic needs, such as education, nutrition and life-span health care services, and especially, adequate shelter for all. To this end, we commit ourselves to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in human settlements in ways that are consonant with local needs and realities and we acknowledge the need to address the glob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trends to ensure the creation of better living environments for all people. We shall also ensure the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of all women and men, and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youth,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fe. We shall promote full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gender equality in policies, programmes and projects for shelter and 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development. We make these commitmen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more than one billion people living in absolute poverty and to the members of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groups identified in the *Habitat Agenda*.

8.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full and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s provided for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that end, we shall seek the active participation of our public, private and non-governmental partners at all levels to ensure legal security of tenure,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equal access to affordable adequate housing for all persons and their families.

9. We shall work to expand the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by enabling markets to perform efficiently and in a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manner, enhancing access to land and credit and assisting those who are unable to participate in housing markets.

10. In order to sustain our global environ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in our human settlements, we commit ourselves to sustainable patterns of production, consumption, transportation and settlement development; pollution prevention; respect for the carrying capacity of ecosystems and the preservation of opportunities for future generations. In this connection, we shall cooperate in a spirit of global partnership to conserve, protect and restore the health and integrity of the Earth's ecosystem. In view of different contributions to global environmental degradation, we reaffirm the principle that countries hav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We also recognize that we must take these action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pproach which shall be widely applied according to the capabilities of countries. We shall also promote healthy living environments, especially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qualities of safe water and effective management of waste.

11. We shall promote the conservation, rehabilitation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monuments, open spaces, landscapes and settlement patterns of historical, cultural, architectural, natural, religious and spiritual value.

12. We adopt the enabling strategy and the principles of partnership and participation as the most democratic and effective approach for the realization of our commitments. Recognizing local authorities as our closest and essential partne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Habitat Agenda*, we must promote, within the legal framework of each country, decentralization through democratic local authorities and work to strengthen their financial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countries, while ensuring their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to the needs of people, which are key requirements for governments at all levels. We shall also increase our cooperation with parliamentarians, the private sector, labour unions and non-governmental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ith due respect for their autonomy. We shall also enhance the role of women and encourage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rporate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Local actions should be guided and stimulated through local programmes based on Agenda 21, the *Habitat Agenda*, or any other equivalent programme, as well as drawing upon the experience of worldwide cooperation initiated in Istanbul by the world Assembly of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without prejudice to national policies, objectives, priorities and programmes. The enabling strategy includes a responsibility for governments to implement special measures for members of disadvantaged and vulnerable groups when appropriate.

13.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Habitat Agenda* will require adequate funding, we must mobilize financial resourc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cluding new and additional resources from all sources -- multilateral and bilateral, public and private. In this connection, we must facilitate capacity building and promote the transfer of appropriate technology and know-how. Furthermore, we reiterate the commitments set out in recent United Nations conferences, especially those in Agenda 21 on funding and technology transfer.

14. We believe that the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Habitat Agenda* will require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Habitat), taking into account the necessity for the Centre to focus on well-defined and thoroughly-developed objectives and strategic issues. To this end, we pledge our suppor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Habitat Agenda* and its plan of Action. We also recognize the need to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as a major requirement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Habitat Agenda* and its Global Plan of Action.

15. This Conference in Istanbul marks a new era of cooperation, an era of a culture of solidarity. As we move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we offer a positive vision of 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a sense of hope for our common future and an exhortation to join a truly worthwhile and engaging challenge, that of building together a world where everyone can live in a safe home with a promise of a decent life of dignity, good health, safety, happiness and hope.

인간적 주거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1. 우리는 나라, 정부, 지역대표로서 인간적 거주에 관한 제 2차 유엔 회의에 모여 전세계적 목표로써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확보와 인간거주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더 살만하고, 적절하고 지속가능하고, 더 생산적일 수 있도록 하자고 승인한다. 이번 회의의 두 가지 주요 주제, 즉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와 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정주 개발은 유엔 현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존하는 그리고 새로운 연대를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여 우리 생활환경을 더 향상시키고자 한다. 하비타트 의제 목적, 원칙, 추천 방법 등에 충실하고 그 이행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긴급하게 현 주거 조건의 계속적인 악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우리는 도시가 문명의 중심으로서 경제개발과 사회, 문화, 정신적 그리고 과학적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거에 의해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간의 연대를 북돋워야 한다.

3. 우리는 모든 인간을 위한 보다 큰 자유로움 속에서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의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인간주거회의가 캐나다 벤쿠버에서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과 무주택자를 위한 세계주거의 해를 축하하여 열렸던 것을 기억하며 모두는 세계가 인간적 주거의 문제를 깨달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며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마련하도록 행동을 요구했다. 최근의 유엔세계회의는, 특히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는 우리에게 평화, 정의,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성취가 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보호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추진인자로서 포괄적인 의제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 모든 회의의 성과를 하비타트 의제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4. 인간주거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위

협수위에 다른 국가개발에서 포괄적으로 비지속적 소비와 생산형태를 특히 선진국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가령 구조와 분포를 비롯한 비지속적 인구변화와 같은 과도한 인구집중현상에 관한 고려사 우선되어야 하고, 무주택자, 빈곤의 증가, 실업, 사회적소외, 가족불안정, 불충분한 자원, 기초적 제반시설의 부족, 적절한 계획부족, 증가하는 불안과 폭력, 환경악화와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5. 인간주거에 관한 것은 전세계적 문제이다. 각국과 지역은 또한 특별한 해결을 요하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전세계 도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과도기에 있는 나라의 환경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함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세계경제의 지구촌화가 개발과정에서 모험과 불확실 뿐만 아니라 기회와 도전도 함께 꿈을 인정하고 또 하비타트 의제의 목표 달성은 개발재정문제, 외채, 국제무역과 기술교환 등의 긍정적 행동에 의해 촉진될 수 있을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도시는 인간이 고결함, 건당, 안전, 행복, 희망 속에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6. 농촌과 도시개발은 상호의존적이다. 도시주거를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또한 적절한 기간시설, 공중서비스, 취업기회를 농촌지역에도 확대시켜 농촌으로 유도하고, 주거의 연대를 확장하고 이농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소규모의 도시는 특히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7.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 관심의 중심이 되므로, 그들이 하비타트 의제를 수행하는 모든 행동의 기초이다. 우리는 여성, 아동, 청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조건이 더욱 필요함을 인정한다. 노력을 강화하여 빈곤과 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인권과 모두를 위한 기본적 자유를 보호·증진시키고 교육, 보건센터, 특히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는 지역적 요구,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세계적, 경제적, 사회, 환경의 흐름에서 요구되는 것을 파악하여 모두가 잘 살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참여, 청년의 효과적 참여를 보

장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 성평등을 정치,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충실히 적용시키고 주거와 지속가능한 인간 주거개발에 접근할 것이다. 우리는 하비타트 의제에서 지정하는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십억 이상의 사람들과 취약하고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이다.

8. 우리는 국제기구 속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충실히 실현시킬 것임을 다시 확인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 민간, 비정부기구의 적극적 참여를 각 층에서 유도하여 세입자들의 법적인 안정확보와 차별로부터의 보호, 모든 사람과 그 가족들을 위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에 접근할 것을 보장한다.

9. 시장이 효율적이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방법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토지와 신용대출방법을 늘림으로써,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을 보조함으로써 재정적으로 가능한 주거공급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 지구환경을 지속시키고 인간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생산, 교통, 주거개발 형태를 발전시키고, 환경오염방지, 생태계를 존중하고 미래의 세대를 위한 기회보존에 충실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세계 연대의 정신으로 협력하여 지구의 생태계의 건강과 현상태를 보존, 보호, 복구할 것이다. 지구환경악화에 각기 다른 방식이었지만, 우리는 각국이 공통적이면서 또한 차별된 책임은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또한 각국 역량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방원칙의 접근방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특히,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건강한 생활환경을 증진시킬 것이다.

11. 우리는 역사적, 문화적, 건축, 자연, 종교, 정신적 가치가 있는 건물, 기념비, 공간, 자연과 주거형태를 보존, 복원, 지속시킬 것이다.

12. 우리는 연대와 참여를 가장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알고 우리의 노력을 실현시키는 원칙과 전략으로써 받아들인다. 하비타트 의제 이행에 있어

지방당국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는 걸 인식하면서, 우리는 각국의 합법적 틀 안에서 민주적 지방 당국을 통한 분산화를 증진시키고 각국 사정에 따라 재정·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그 투명성을 보장하고, 각 단계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핵심인 사람들의 요구에 책임질 것이다. 또한 의회, 민간진영, 노조, 비정부나 다른 시민 단체들과 자치는 존중하면서도 함께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역할을 늘리고 민간진영에 의한 투자가 사회적·환경적인 면에서 책임성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각국의 행동은 하비타 의제인 의제 21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거나 도시 및 지방당국 세계 회의에 의해 이스탄불에서 결의된 세계적 협력의 경험을 끌어올려 국가정책, 목표, 우선순위, 프로그램에 편견없이 적용시켜야 한다. 이런 전략에는 정부가 장애인이나 약자들에게 필요시 특별조치를 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13. 하비타 의제 이행하기 위해선 적당한 기금이 필요하므로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재원을 끌어들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새롭고 추가적 모든 재원을 포함한다. 다국간, 쌍방간, 공공, 민간부문의 자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 회의에서 결의된 의제 21의 기금마련과 기술전수에 관한 항목들을 특히 다시 한번 반복하는 바이다.

14. 하비타 의제를 충실히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UNCHS(HABITAT)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 기구는 제대로 정의되고 완벽히 개발된 목적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우리는 하비타의제와 행동방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보조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UNCHS는 하비타의제와 범지구실천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기구로써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인정한다.

15. 이 이스탄불 회의는 협력의 새로운 시대, 연대문화의 시대를 말한다. 21세기로 나아감에 따라 우리는 인간적 주거환경에 대한 긍정적 비전과 모두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진정 가치있고 매력있는 도전에 함께하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며 모두가 안전한 집에서 고결한 삶, 건강한 삶, 안전, 행복, 희망에 찬 삶을 꾸릴 수 있는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 가자.

(참고자료)

세계주거회의의 한국민간위원회 기자회견문

(1996년 6월 22일)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개발'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리우 환경회의로부터 출발한 이러한 전지구적 노력은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고, 이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통해 종합되어 사회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노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다.

세계주거회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도시화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지구적 차원의 논의를 거친 결과 세계주거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채택할 예정이다.

세계주거회의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각별한 것이다.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은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강제철거와 전세값 폭등을 비롯하여 각종 오염과 자연환경 파괴, 사회적 약자를 무시한 도시환경 조성, 늘어나는 통근시간과 불편한 대중교통수단 등의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직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주거회의의 참가단은 '인간 중심의 도시화'라는 전략과 '주거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 가는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나아가 우리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를 전지구적

차원의 행동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특히 주목할 것이다.

첫째, 주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주거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인 강제철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갈 것이다. 또한 주거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거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자치적인 도시환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압축적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의 도시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생산, 불평등한 배분, 과잉소비,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기업이나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개발·관리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평등, 환경자치라는 3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도시간 균등발전과 과잉소비의 억제, 생존을 위한 적정 자원의 보장과 자원이용 및 환경개선 비용의 형평적 분담, 환경 관련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와 방어적 주민활동의 보장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개발주도의 경제정책은 계층간의 차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을 소외시켰고, 정주권에서도 남녀차별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 상속에 대한 여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과 아동, 노인은 지역사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며 가장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안정된 공간으로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 내의 유해화학물질, 교통사고, 향락업소, 성폭력 범죄의 유해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면서도 모성이 보호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여성, 아동,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들

의 상황과 신체구조에 합당하게 건설되어야 하며, 성을 상품화하는 매체를 규제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생활최저선보장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며, 삶의 질에 대한 일관된 정책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며, 전국민의 삶의 영역에 대한 합의된 기준선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삶의 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장래 통일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통정책과 교통운영, 교통시설의 설치에서 친환경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량과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보행교통 등이 연계되는 녹색교통망(Green Transport Network)이 교통체계의 핵심을 이루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로의 신설과 확장을 중심으로 한 교통투자를 지양하고 녹색교통망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려 나간다.

이러한 사안들이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 정책의 변화,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 긴밀한 연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주거회의의 참가단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는 바이다.

HABITAT의 지역화

HABITAT의 지역화란 지역주민들에게 HABITAT Agenda가 보다 실현가능토록 하는 것을 의미

도시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주거환경이란

- 평등한 사회 - 지속 가능한 생태 - 참여 가능한 정치 - 생산 가능한 경제
- 풍요로운 문화

도시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이 HABITAT II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요한 행사를 UN이 채택한 중요한 날들에 개최하는 것이다. 올해는 '실천의 해'로 1996년은 빈곤 퇴치의 해.

- 7월 11일 (목) 세계 인구의 날
- 9월 8일 (일) 국제 평화의 날
- 10월 1일 (화) 국제 노인들의 날
- 10월 6일 (일) 세계 어린이의 날
- 10월 7일 (월) 세계 주거(하비타트)의 날
- 10월 9일 (수) 국제 천재지변 축소의 날
- 10월 15일 (화) 세계 식량의 날
- 10월 17일 (목) 국제 빈곤 퇴치의 날
- 10월 24일 (목) 유엔의 날
- 11월 25일 (월) 국제 여성에 대한 폭력반대의 날
- 12월 1일 (일) 세계 에이즈의 날
- 12월 3일 (화) 국제 장애인의 날
- 12월 5일 (목) 국제 자원봉사자의 날
- 12월 10일 (화) 인권의 날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자료집 4호

세계주거회의의 실천과제와 민간단체의 역할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보고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도시정상회담: the City Summit)

발행인 / 공동대표 김진홍, 권태준, 김혜경
 발행처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사무국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2동 75-12 전화; 3673-3031-3 전송; 3673-3278

후원금을 보내주시요
 국민은행 : 041-21-0353-586 예금주 : 나포우

제2차 UN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와 여성의 과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개발부장)

1. 여성의 관점으로 본 가정, 공동체, 그리고 주거환경

지난 6월에 개최된 제2차 UN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와 관련된 전 세계여성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층여성조직협동체(GROOTS International), 여성과 쉼터 네트워크 (HIC Women and Shelter Network), 여성의 환경과 개발 조직 (WEDO) 등으로 구성된 <여성, 가정, 공동체 연합> (The Women, Homes and Community Super Coalition)은 1994년 세계주거회의 제1차 준비회의에서 결성되었고, 뒤이어 지난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쉼터와 인간정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성, 가정, 공동체 연합>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주택, 공동체, 그리고 주거환경과 관련된 전 세계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를 공론화하였으며, 세계주거회의의 의제 채택과 전지구적 계획 수립에 있어 여성의 관점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참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세계주거회의에서의 여성들의 활동은 지난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이후 부터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 이르는 지난 20년간의 1, 2차에 걸친 '유엔여성10년'을 점검하고 새롭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3차 '유엔여성10년'을 통한 여성발전의 연속선상에 위치한 활동입니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에 의하면, 세계가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사회의 전반에 걸쳐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세력화와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임을 다시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여성대표들은 여성의 창조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배제된 주택과 공동체, 그리고 환경의 개발은 결코 온전한 형태의 개발일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의 세계 각

지에서 드러난 창조적인 여성들의 활동은 여성의 관점과 여성의 실천이 개입된 주거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대안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뉴욕의 문을 닫은 한 병원을 전미이웃여성전국회의의 뉴욕지부에서 인수, 이를 탁아소 및 기타 시설이 구비된 아파트로 전환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탁아소에서 출발한 독일의 어머니 센터는 현재, 이전의 병영막사를 어린이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시설로 전환시켜 건축과 지역사회개발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세계주거회의에서의 여성들의 활동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세계주거회의에 참여한 여성진영은 회의에 참석한 어느 부문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선 '여성세력화의 경제학' 등 실제적으로 여성의 관점과 참여가 보장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워크숍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된 '여성회의'(Women's Caucus)에서는 의제를 둘러싼 논의의 진행경과가 보고되었고, 이에 여성의 입장을 정리하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로비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여성텐트를 설치하여 전세계 여성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체 개발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담은 전시회도 다양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의장 내에 탁아소를 설치하여 여성들이 아이때문에 활동에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특히 대회장에서의 탁아소 설치를 하나의 활동으로 언급하는 까닭은,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현재의 사회구조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많은 여성대표들은, 주거권의 보장을 의제로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로비활동을 아시아 지역의 NGO 대표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빈곤인구의 70%가 여성일 정도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가장 큰 여성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20세기의 말에 지붕과 벽이 있는, 그리고 강제철거의 위협이 없는 주택에서 살 권리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는 곧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NGO대표들은 '강제철거 반대'와 '주거권 확보'를 주장했던 아시아지역 철거민들의 텐트에서 각국 참가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모아내고 또 이를 하나의 요구로 조직해내던 아시아 여성지도자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빈민여성들의 지도력을 키워내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중에 개최된 다양한 주제의 여성워크숍 중, AWAS가 개최한 '폭력 없는 도시를 향하여'는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전세계 여성들의 공통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장이 정부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함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차별적 환경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해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을 망라하여 총체적인 성평등적 관점이 수립되어질때 만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한목소리로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해 조직된 여성단체가 존재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성폭력 실태가 큰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다년간의 조사를 통해 발표한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의 사례는 여성을 위한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과 함께 이러한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화의 진전이 직접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시아지역의 공통의 사례를 통해 여성을 위한 쉼터의 설치 또한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3. 한국의 성폭력(Gender Violence)적 주거환경 실태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1996년인 올해에 이르기까지 지난 30여년 동안 유엔에서의 여성문제 해결방안은 모든 정책에 여성문제를 통합하고, 이를 위해 여성을 정책결정 과정의 주류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노동, 농민, 중산층여성 등의 계급, 계층별로 전개되어온 한국의 여성운동은 지난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연대들을 형성,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정과 개정, 가족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제식민지시대에 강제로 주거권과 인권을 동시에 빼앗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여 UN인권위원회를 통해 민간차원이 아닌 일본정부 차원의 국가배상을 결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에만도 유치원 원장에 의한 어린이 성추행, 중학교 교장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11살 소녀가장에 대한 같은 마을의 14명에 달하는 남성들의 거둬진 성폭행, 또한 귀가길에 성폭행을 당해 학교에서 출산을 한 여중생 사건에 이르기까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끔찍할 정도로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사회가 여성에 대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1995년 제1기 지방선거를 통해 '여성할당제'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거둬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총 299명 중 9명(3%)에 불과하고, 지방의회의 경우도 기초의원 4,541명 중 72명, 그리고 광역의원 970명 중 55명(비례42명, 선출 13명)에 불과하여 2.2%에 불과합니다. 행정부내의 여성공무원 비율 또한 하급공무원의 경우는 여성이 26% (85만 중 22만명)에 달하나 5급 이상의 고위관리직은 1.7% (1만3천명 중 212명)에 불과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의견 반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성의 참여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올바른 주거정책이 수립되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여성에 대한 복지혜택 또한 열악하여, 올해 58조에 달하는 정부의 총 예산 중에서 여성복지로 추계된 액수는 겨우 149억에 불과해 0.0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방위비가 국가 총예산의 22%를 차지하고 경제개발비가 2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겨우 4.03% 밖에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가 아무리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고자 애쓴다해도 결국 여성폭력적이고 후진적인 국가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 성평등적 주거환경을 위한 한국여성들의 요구

성평등적인 주거환경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는 사회 각 부문에서의 여성차별이 개선되었을때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과 정책수립과정에 성평등 관점과 인식이 통합되었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 교육과 훈련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을 시행하는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 관점이 견지되어 피해당사자인 여성이 오히려 놀림감이 되는 우리사회의 구태의연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나아가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남성들이 엄정하게 처벌을 받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결정의 자리에 여성이 참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와 자치단체의 환경, 교통, 주택 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모든 부문의 정책입안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할당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국가와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에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고, 그 정책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정부예산 편성을 경제개발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개발과 복지(특히 여성복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민간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정책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여성지도력 육성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책을 제도화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피난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무원, 경찰, 검찰, 공공기관, 교육담당자, 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하여 성평등 교육을 실시, 성평등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야 합니다.

헤비타트 아젠다의 초안에도 있듯이 교통은 도시내, 도시간 그리고 지역간에서 재화와 인간, 정보와 사상의 이동을 위한 열쇠이자 시장과 고용, 각종 시설물과 토지 이용에 다가가는 접근방법이다. 그렇지만 교통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와 토지의 주된 소비자이다. 또한 혼잡과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각종 오염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이번 헤비타트 회의에서는 각 도시들은 물론이고 지구환경 전체 차원에서도 교통부문이 일으키는 환경문제와 생활환경 침해문제가 깊이 인식되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교통부문은 현재 전체 이산화탄소배출의 22%, 일산화탄소 배출의 66%, 일산화질소의 47%, 탄화수소의 39%를 배출하고 있다. 급격한 자동차화 과정에서 '더 많은 차량 -> 더 많은 도로 -> 더 많은 교통 -> 공공교통의 악화 -> 더 많은 차량 -----'의 악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공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수요)와 공급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구축이 우리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 정주지에서의 교통은 기존 교통체계의 부정적 영향들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교통 체계와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번 헤비타트 회의에서는 이같은 문제인식을 토대로 여러 가지 행사가 펼쳐졌는데 그 핵심은 '아젠다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었다. 여러 세션과 다이얼로그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개발도상국의 많은 대표들은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당초 다소 무미건조하고 거칠게 만들어진 아젠다 초안은 헤비타트 회의 이전에 많은 변화와 수정을 거쳐 변화되었다.

당초 상징적으로만 언급되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경제적 약자,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의 교통에서의 어려움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 오염을 일으키는 교통수단을 억제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27D).
- 인간정주지에서의 교통이 접근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교통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통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102 BIS)
- 교통시스템은 적절한 토지이용과 통정책을 통해서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자동차 대신에 다른 이동수단을 강조하는 교통정책을 개발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102-BIS)
- 저소득층,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을 실현한다. ((102-BIS)
- 적절한 가격, 장소별 이동수단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걷기, 자전거 타기, 개인 및 공공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운송의 최적의 통합을 촉진한다. (Actions:3)

이같은 원칙들이 한국의 교통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차원의 정부가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 신장, 오염자 부담원칙을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이다.

21세기 인류 최대의 과제는 도시주거환경

세계주거회의는 주택, 환경, 범죄, 교통, 인구과밀 등의 도시문제를 세계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더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영위될 수 있는 도시주거환경을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을 논의하는 장이다. 과연 세계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가.

◆ 최병두 / 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

세계 인류의 역사는 근대 이후, 특히 금세기에 들어서서 물질문명의 가속적 발달에 기초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구적 규모로 확대된 근대 산업사회는 또한 동시에 엄청난 인구증가와 이로 인한 주거시설 및 여타 생활자원들의 부족 그리고 생활환경의 열악성 및 자연환경의 퇴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현상들은 특히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상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도시지역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현재 세계인구는 58억명으로 이 가운데 최소한 24억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경에는 세계예상인구 66억명 가운데 2분의 1인 33억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이고, 2015년에는 4분의 3이, 2025년에는 예상인구 80억명 가운데 5분의 4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도시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도시인구,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의 도시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심각한 도시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즉 1995년 현재 도시 거주민들 가운데 무주택자는 1억명에 이르고 불량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6억명에 달하며, 연간 1천만명이 주택부족과 궁핍한 주거환경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는 지적하고, 이러한 주거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계아동기금(유니세프)은 2025년경 개도국에서 태어나는 아이 10명 가운데 6명이 도시태생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마다 5백-6백만명의 어린이가 열악한 주거 및 보건 환경 속에서 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 남성 위주 사회질서의 온존으로 해마다 15세 정도의 어린 여성들이 새로 매춘 시장에 유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문제, 주거문제, 아동·여성문제 등과 더불어, 도시의 보건환경은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도시의 범죄, 교통, 환경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세계인구는 2배 증가한데 비해 물소비량은 6배나 증가했으며, 앞으로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50년 이내에 물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경고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21세기 초 이 지구상의 인간은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자원고갈, 주택, 환경, 범죄, 교통 등 심각한 도시문제들의 심화로 인해 인류문명의 역사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주거회의는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세계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21세기를 맞아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영위될 수 있는 도시주거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써 개

최되었다.

과밀인구로 신음하는 전세계 도시

유엔은 이미 20년 전 이러한 도시주거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시화 과정의 관리 및 인간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1976년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제 1차 주거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세계적 도시의 인구증가와 도시문제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반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 역사적 회의의 결정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은 UNCHS (U.N.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유엔인간정주센터)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케냐의 나이로비에 설치했다. 유엔 총회는 이 회의로부터 20년이 되는 1996년 6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제 2차 세계주거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약칭하여 'HABITAT II'라 부르게 되었다. 이 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된 이후 20년이 지난 후 리우에서 이 회의가 개최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UNCED가 '세계정상회담'이라 부르는 것과 대비하여 '도시정상회담'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회의는 '20세기 마지막 유엔회의'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초월지대라는 뜻을 갖는 '수베르비리오', 저침 민중운동 전사인 이 인물은 멕시코 당국으로부터 주택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무주택자들을 지지하여 시위와 운동을 주도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HABITAT II의 사무국인 UNCHS는 3년 간의 준비과정을 두고 회의를 준비하였고, 1994년과 1995년 2차에 걸쳐 회의의 의제인 '범지구실천계획'(Global Plan of Action)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1996년 2월 뉴욕에서 마지막 제 3차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준비상태를 점검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1996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예정으로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 2차 세계인간주거회의에는 전세계적으로 1백70개국에서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의 대표 및 기업인, 과학자, 문예인 등 1만여명의 대표단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유엔은 지난 4월 30일 공식과산을 선언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이번 회의에 거의 1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의 보장'과 '도시화 하는 세계

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개발'을 목표로 진행된 이 회의 기간 동안, 각국에서 참석한 정부대표들은 자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상호 의견결충을 위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으며, 비정부기구의 대표들은 포럼, 전시회, 문예활동, 집단시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도시주거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기업인들과 과학자들도 코크스, 다이알로그, 심포지움, 워크숍 등 다양한 회의체제를 통해 도시주거환경문제에 대처할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논의했다. 이 회의는 이와 같은 열띤 논의와 상당한 진통 끝에 21세기 도시주거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청사진으로써 1백13쪽 분량의 의제(비망록)와 이를 요약한 '이스탄불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예정보다 하루 늦은 6월 15일 폐막되었다.

도시화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제 2차 세계주거회의가 가지는 의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주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도시주거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지구적 논의와 실천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즉 산업화과정과 손을 맞잡고 진행되었던 도시화가 인류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며 찬란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 도시는 무주택자의 급증, 범죄와 질병 및 사회적 병리현상의 만연,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인류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HABITAT II의 사무총장인 윌리 은도우가 이 회의의 의의를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가"라는 과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는, 이 회의에 참석했던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파키스탄의 수도 카라치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도시는 과밀한 인구와 이에 따른 소음·먼지·범죄로 신음하고 있다"고 역설했고, 주최

국인 터키의 슬레이만 데미렐 대통령은 도시환경문제에 있어서 "모든 나라가 같은 편이며 해결 여하에 따라 모두가 승자가 되거나 모두가 패자가 된다"며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다. 이 점 등에 반영되고 있다.

둘째, 특히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거권에 대한 인식과 보장이 제고되었다. 유엔통계에 의하면, 1990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교육과 보건을 위해 예산의 15%와 6.4%를 각각 투입하는데 비해 주거에는 3.3%만 지출할 정도이다. 이와 같이 주거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에서, 주거권에 대한 강조는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권의 제고는 회의 그 자체의 명칭에 상응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참가국들 간,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의견차이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3차에 걸친 준비회의 과정에서 주거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전제되었으며, 또한 회의기간 동안 윌리 은도우 사무총장은 거주권을 독자적인 인권으로 선언하도록 요구하는 50만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마이클 스티그만 미국 대표는 미국 내에서 주거권 보장에 관한 집단소송사태를 우려해, "이미 '세계인권선언'에 주거권을 포괄한 권리항목이 들어있다"며 "주거권을 굳이 인권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과 이에 동조하는 일본,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주거권을 독자적 인권으로 선언하지 못하고 대신 "모든 이를 위한 주거는 국제사회의 명백한 목표"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또한 초안은 무주택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차별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책임을 우려하여 민간기업,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에 공동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록 주거권이 완전히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주거권에 대한 인식과 이의 보장의 당위성이 천명된 것은 이 회의의 주요한 성과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엔이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비정부기구 및 지역주민단체 대표들이 본회의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의제의 작성과 심의에 이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었다. 이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회



인도 볼베이시의 임시 주거지 모습. 뒷쪽으로 보이는 현대식 아파트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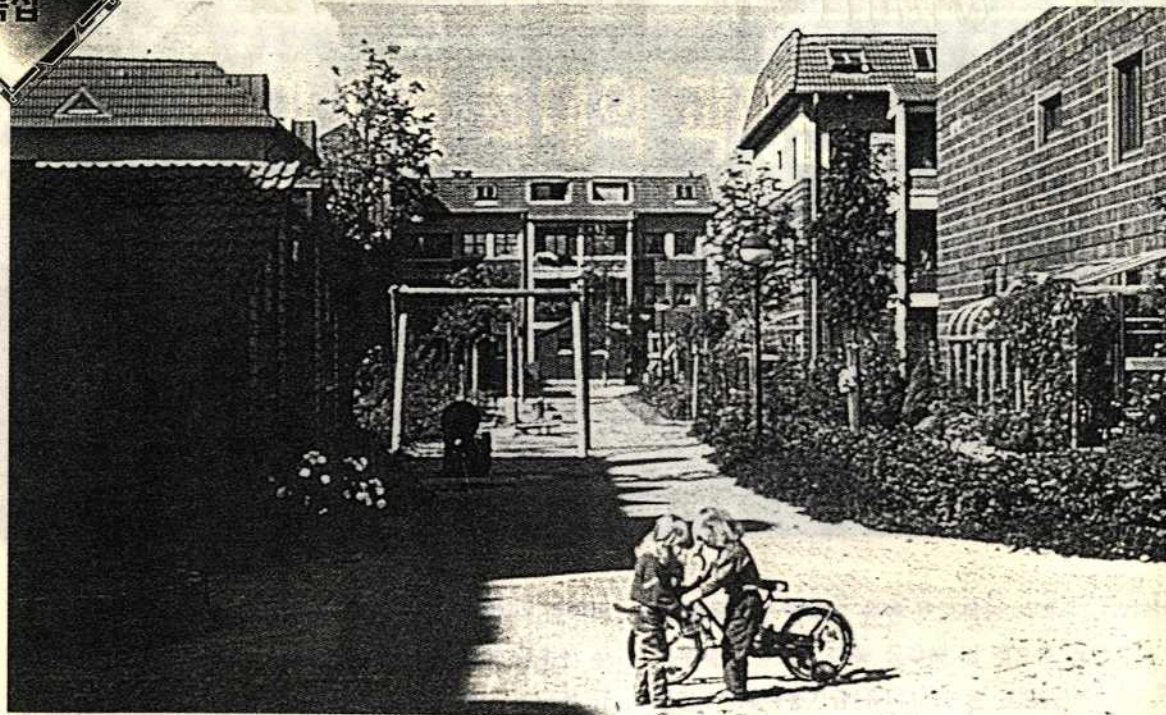
의가 비정부기구의 본회의 참석을 인정하는 등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일종의 심의위원회인 '제2위원회'에 참여하여 공식적인 발언 및 의결권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들은 공식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5월 31일부터 11일까지 수백개에 달하는 포럼(예로, 6월 4일 하루 동안 1백40개의 NGO 포럼이 계획되었음)과 여타 관련 행사들을 주관하면서 자신의 요구들을 주장하고 정부 대표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 유엔 회의들이 정부의 공식 대표들만으로 진행하면서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단지 참관하는 자격에 머물렀던 경우들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유엔이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과정에서 악화된 도시주거환경문제를 각국의 정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비정부기구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회의에서 그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 2차 세계주거회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시켰다. 첫째, 이 회의에 대한 각국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또한 과거의 세계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상당한 의견차이를 드러내었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담에도 1백18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했던 반면, 이번 이스탄불회의에는 행사 마지막날까지 정상급 대표가 겨우 20명 정도 참석했다. 이러한 사실은 각국 정상들이 도시주거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세계회의들이 횡수를 거듭할수록 그 실천적 규정력이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도시주거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세계의 모든



친환경적으로 설계했다는 독일의 알러모헤 시.

국가들 다소간에 공통되지만, 특히 선진국들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주거권의 독자적 인정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반면 비정부기구 및 일부 개도국 대표들이 이러한 주요 쟁점들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회의가 연장될 우려까지 나왔다. 특히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이번 회의의 막판에 미국측이 비망록에서 이스라엘 점령촌을 언급한 일부 문맥이 중동평화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비망록 채택에 반대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폐막회의가 10시간 이상 늦어지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둘째, 이 회의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제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회의는 초점을 상실하고 방만하고 나열식의 논의가 전개된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 회의의 핵심적 과제는 좁은 의미로 주거문제였다고 할 수 있지만, 한 곳에서 주거권을 독자적인 인권으로 선언 하자는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곳 들에서는 어린이 매춘 및 여성의 성문제, 도시고용의 변

화와 노동조합문제, 도시범죄 급증에 대한 고발, 교통문제의 심화와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 녹지를 확충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 에너지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산업, 환경오염물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등등 도시 문제 전반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수백개에 달하는 개별 회의들에서 치밀하게 조직되지 않은 채 논의되었고, 회의기간 중에 세계환경상 시상식이 있었다.

도시화에 따른 인간 생활의 위협적 요소들의 증대는 물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매우 체계적인 사전계획과 치밀한 회의진행이 필요했지만, 실제 회의의 진행과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 처럼 보였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예정된 회의들이 취소되기도 했으며, 회의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채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한 예로, 일본은 환경기술개발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논의에서 자국 소각시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민성(?)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주체국인 터키는 이 회의를 통해 2004년 올림픽 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했으며, 일본의 오사카 시는 심지어 2008년 올림픽 유치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셋째, 이 회의에서 21세기 도시주거환경에 관한 의제와 이를 압축한 '이스탄불선언'이 만장일치로 결의되긴 했지만,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의 치밀하지 못한 회의체제로 인해 결의된 내용들이 과연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로, 의제와 선언에 사용될 용어를 둘러싸고 심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 행동 보다는 말이 앞섰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거권을 독자적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은 주거권이라는 단어를 가능한 적게 넣기 위해 의제에 이 단어를 몇 번 넣을 것인가를 두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반면, 바티칸에서 파견된 교황청 대표는 "애초 결의문 초안에는 2군데에만 있었던 출산권이나 성생활의 권리 등 성에 대한 언급은 미국 대표가 지난 4일 동안 4군데나 추가시켜 놨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지엽적 문제를 자꾸 들먹여 회의진행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결의된 내용의 실행가능성에 있어, 개도국들은 자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선진국들의 추가원조 및 기술이전을 요구했지만, 선진국들은 이를 거부하고 티에리 뢰펠 유럽연합(EU)대표단장이 밝힌 바와 같이 '기존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앞으로 10년 간 국방예산의 단 5%만을 전용한다면 날로 악화하는 도시주거환경은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윌리 은도우 주거회의 사무총장의 호소는 양쪽 모두로부터 외면당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들 가운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뚜렷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한 곳도 없었다. 오직 세계은행만이 상수도·쓰레기청소·도로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해 1백5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회의의 결의가 얼마나 실천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 개도국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원조 거부

이러한 문제점 또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 주거회의는 도시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지구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 그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즉 이 회의에 참석했던 서지 도미첼리 국제도시계획전문가협회 회장이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후손들에

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도시개발방법"이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삶은 지금의 우리가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이 회의에서 결의된 의제를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이 모두 공감한 것 처럼, 이러한 21세기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참여'라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시주거환경은 인간의 생활과 직결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조건이다. 앞으로 도시화가 더욱 진척되면서, 도시주거환경문제는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도시주거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주거환경관련 세계회의들도 더욱 빈번하게 개최되고 보다 구속력을 가진 결의들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계회의들은 정부대표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사회단체, 전문가집단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 보여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회의에 대처함과 동시에 국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현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위원회의 구성과 국가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부터 민간부문과 함께 함으로써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얻은 성과들을 살리고 미흡했던 점은 반성적으로 개선하여, 세계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발적 실천을 전개해 나가야겠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21세기는 단지 시간만 지나가면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지구의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채 21세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21세기가 채 오기도 전에 우리는 인류 역사의 끝을 맞을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놓은 위협의 조건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실천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